

오전 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 인도자
※ 예배기원	..... 인도자
※ 경배찬송	..... 26장(구세주를 아는 이들) ..... 다 같이
※ 교독문	..... 105(감사절1) ..... 다 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찬송	..... 288장(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다 같이
예배기도	..... 1부 선우명환집사 2부 박홍만장로
응답송	..... 찬양대
이달의찬양	..... “감사로 제사” .....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의기도	..... 다 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와 성도되게 하옵소서.</li> <li>*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하옵소서.</li> <li>*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li> </ul>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 신명기 16:9-12..... 김애자권사
찬양	.....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최세열목사
기도	..... 설교자
◆응답하는 예배◆	
찬송	..... 393장(오 신실하신 주) ..... 다 같이
봉헌	..... (2 구역) ..... 다 같이
봉헌기도	.....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 말은이
※ 찬송	.....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 같이
※ 축도	..... 최세열목사
※ 축복송	.....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토)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인도 / 최세열목사	찬양 / 다함께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도 / 류종관권사	본문 / 딤편 3:14-16	기도 / 한마음기도	본문 / 디도서1:1-9	(마태복음강해)	
말씀 / 최세열목사	말씀 / 최세열목사	<b>금요기도회</b>			
바울 목회자 7스피릿	제1과 목적이 분명한 목회자	말씀 / 최세열목사	“바울의 사도직”	금요일 오후9시	개인기도, 중보기도
주기도문 / 다함께	주기도문 / 다같이	함성기도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관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다음주	1부	김선주집사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기도	2부	강항구장로
	헌금위원	7월 김기희 신공님 허웅 김귀례	다음주	1부	말은이
		8월 최경선 주중임 안혜숙 김연학	성경봉독	2부	정정희권사
식당봉사	금주 에스더A	다음주 에스더B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김인순권사	
헌신찬양	금주	2구역	다음주	3구역	

###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 신명기 16:9-12

교회력에 따른 여러 절기 가운데 구약적인 의미와 더불어 신약적인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절기가 있다면 그것은 맥추절(오순절, 칠칠절)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오순절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이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이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첫 양식을 거두어들일 때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원역사, 그리고 양식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절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나라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 1. 지키라(Celebrate)고 하십니다.

10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 지킨다는 말은 ‘경축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찬양하다, 덕을 기리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축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축제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혜, 율법주심, 양식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죄로부터의 구원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드리라(Give)고 했습니다(10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예물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림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대로 드리라’고 했고, 둘째, ‘네 힘을 헤아려’ 드리며, 셋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 3. 즐거워하라(Rejoice)고 하십니다.

11절을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즐거워할 장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맥추절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의 이유에 대해 15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한 감사와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 4. 기억하라(Remember)고 하십니다.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을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며 행할지니라”고 하십니다. 왜 맥추절에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세상의 관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 참 자유인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박국선지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합3:17,18).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성령강림후 다섯째 주일(7월 6일)

**제 28 과 남의 양심(고린도전서10장 27-31)**  
(함께 읽을 말씀 : 잠언22:9-11, 누가복음 6:37-38절)

#### 말씀묵상

1. 단식 기간에 시에소스(Siesos) 교부에게 손님이 찾아오자, 교부는 음식을 대접하게 했습니다. 더구나 교부는 손님과 같이 음식을 들었습니다. 단식 기간에 교부가 음식을 들다니?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손님이 비난하자, 교부의 제자가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어른께서 식사하도록 만든 당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교부께서 이날 이후 몇 날이나 보속(補贖)하리라는 사실을 정녕 당신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시에소스 교부, 그에게는 자신의 엄격한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교부에게 ‘단식’은 목숨을 건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물론 손님이 간 후에 몇 배로 더 단식하는 고통을 견뎌야 하겠지요. 자신의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선으로 두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의 경지에 오른 고수 아닐까요?

2.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행동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남의 양심’입니다. ‘양심’은 당시 헬레니즘 세계에서 ‘자유’를 구가하는 삶의 토대였습니다. 양심에 따르는 삶, 마음이 흐르는 대로 막힘없이 가는 삶은 얼마나 자유로운 삶입니까? 이에 따라 그리스도인들도 낡은 전통과 관습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금지되었던 음식들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구매한 고기도 그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도축은 제의적 의식을 거쳐 시행되었고, 시장은 부정한 것들이 판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 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지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야예 시장 음식을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장에서 산 고기뿐 아니라 불신자의 집에 가서도 자유롭게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음식이 우상 앞에 놓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바울에게 신앙은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소중한 자유를 유보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입니까?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나의 자유를 유보해야 할 때가 있다면 얼마나 긴박한 경우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의 양심에 걸릴 때였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신념을 유보해야 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다른 사람)를 위해 자유를 버린 것, 그것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방향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기초이자 완성입니다.

3.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또 얼마나 메마르고 각박합니까! 우리의 희로애락은 무엇에 휘둘려 요동칩니까? 다른 생명을 향해, 조그만 풀 한 포기, 앙증맞은 꽃 한 송이를 향해 활짝 열린 마음!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 생각만 해도 한 줄기 바람처럼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냐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시다.
2. 예배 후에 제직회로 모입니다.
3. 성령충만을 위한 작정밤기도회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 해든솔 선교활동이 이번 주 토요일(12일)에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8시30분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5. 노회소식
  - 경기노회 남녀신도회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4시30분 열린우리교회에서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감각**

매임 박사의 일기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한 시간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두 세 시간 즐겁게 보내려고 하면 영화관에 가는 것이 좋다. 4, 5일 즐거려면 마음이 맞는 사람과 여행이라도 하라. 한 달쯤 즐겁게 살려면 새 차를 사라. 1년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집을 새로 지으라. 일생을 행복한 나날로 보내고 싶으면 언제나 양심의 소리에 따라 정직하게 살라.”

양심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

영국의 종교가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로우(Law, William 1686-1761)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데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대답하겠다. 왜냐하면 얼른 보기에는 불행한 재화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도리어 축복의 결과가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자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품을 많이 내어주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줄 알고 무엇이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자기도 하려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의의 사실로 알고 받아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 그것은 언제나 행복과 만족을 가져오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27 2014.7.6.

**7월의 기도(맥추감사절)**

주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갖 식물이 귀한 열매 맺어내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추수하기까지 햇볕과 물과 바람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리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땅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내는 것같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삶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보혜사 성령님을 온몸에 모시어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의 열매를 풍성하게 나누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신앙의 선조들이 맺어낸 열매를 맛보았으니, 배불러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게 수고하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할 때에 크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갈망하며 사모하오니 이곳에 임하시어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참 생명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 환영**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게 되신 새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이상호, 주근희성도님(영통구 원천동 52-3) / 에스더회
- \* 우기남성도님(영통구 동수원로 432 4동 1011(동남아파트) / 한나회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십 일 조 : 박세일 한상호 차소라 안복선 김애경 김근중 주종임 서영자 정속자 박치국 이영란 강항구 류종란 김혜경 김춘자 윤승호 최경선 박기환 한옥자 김선영 김기수 신혜영 양희임 김중천 이영선 이문순 임병호 김경희
- 감사헌금 : 김병국 김기희 박광섭 김동현 김지환 이종춘 심문자 김혜경 이문순 김병진 박정일 (일천번제)김동현 (선교)이영란 (생일) 김귀례 김순남 최정인
- 맥추감사 : 김연학 김장숙 김선영 박상귀 공영순 무명
- 건축헌금 : 강항구 류종란 박기환 한옥자 김혜경 이종봉 이춘호 이윤화 이현하 김근중 주종임 박치국 이영란 임병호 김경희 베드로회
- 비전씨앗 : 배영인 전광현 전윤화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김귀례	3	14,000	10		7	강은순	이영선	교회	6	10,000	65	박정미
2	정정희	김한순	신혜영	4	17,000			8	김순남	오복실	차소라	4	20,000	80	허웅
3	이춘호	한경숙	이종봉	3	15,000	100	박정일	9	김인순	이영란	한미경	3	11,000	200	박치국
4	김기희	최경선	김기희	3	11,000		최경선	10	장영분	노순영	김애경	3	15,000	75	노순영
5	이문순	원혜경	남궁순	4	15,000		서영자	계				36	143,000	715	
6	류종란	김애자	교회	3	15,000	185									

**예배시간안내**

구분	요일	시간	장소	구분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9시,11시	본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양예배	주일	오후 2시	본당	어린이예배	주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년부	주일	오후 2:30	사무실

**담임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종만 강영구**  
**교육전도사: 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